

문화탐방

역사 속의 제주 기녀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김 순 이

제주기녀들 중에는 자존의식이 남달랐던 여성들이 많았다.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고귀한 정신의 삶을 지향함은 여간한 내공이 없고선 불가능하다. 많은 제주기녀가 시대를 초월한 인간애로 민초의 고통을 어루만지는데 생애를 헌신하였다

세상이 칭하기를 ; 제주기녀의 권세가 막중하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기록물에는 제주목의 기녀에 관련된 기사가 적지 않다. 기녀는 천한 신분인 관비(官婢)에 불과했으나 권력을 가진 자를 사로잡으면 얼마든지 그 권력에 편승할 수 있었다. 그 세력을 빙자하여 사치를 누릴 수도 있었고 재물을 모을 수도 있었다. 1421년(세종3) 사헌부에서 올린 장계가 올라왔는데 정의현감 이침에 관한 것이었다.

이침이 정의 현감이 되었을 때 제주의 관기를 사랑하여 관처의 물품을 도둑질하여 주었고 또 사사로이 무역을 하기 위하여 나주에서 상선을 보냈다가 풍랑을 만나서 20여 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장죄(贓罪)를 범한 것은 비록 사령(赦令)이 내리기 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빠져 죽게 한 것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명률(大明律)’에 있는 과실 살해 조항에 의하여 속전(贖錢)을 징수하여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고루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년 4월 27일 조

이 장계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임기 중 제주 기녀에게 혹하여 관아의 물건들을 빼돌렸다는 점, 둘째는 무역으로 돈벌이를 하다가 풍랑으로 20여명이 죽었는데도 가족에게 한 푼의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점, 셋째는 이첨에게서 속전을 받아내어 그 돈을 풍랑에 죽은 사람들의 가족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점이다.

정의현의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현감이었다. 현청 관아의 물품을 관리해야 할 자가 기녀를 통하여 얼마나 물건을 빼돌렸기에 고을이 모두 알고 도둑질한다 하겠는가. 장계에서는 기녀를 사랑해서 저지른 일이라 하나 실은 돈을 사랑했기에 기녀와 짜고 관아의 물품을 빼돌려 팔아 그 돈을 챙겼을 것이다. 이첨이 무역으로 돈벌이를 추구했다는 점, 생목숨들이 수장됐는데도 그 가족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그는 오로지 돈만을 추구하는 공무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첨은 한갓 벼슬자리를 재물취득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이비 관리였다. 그는 진정한 사대부가 아니었다. 조선시대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 엄연한 신분 사회였다. 학문과 정신의 세계를 탐구하는 선비를 최고의 위치에 놓았고 이윤을 쫓고 돈을 버는 장사치를 가장 천하게 보았다.



〈그림〉 연소담청 (年少踏青), 18세기경 | 해원 신윤복 (申潤福) 35.3 X 28.2 cm

김상헌은 1601년 선조31 제주안무사로 파견되어 왔다. 그는 이때의 제주 실정을 소상하게 담은 『남사록(南槎錄)』을 남겼다. 11월 18일자 기록에는 관기를 끼고 깡패나 무뢰배처럼 권력을 남용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제주목 군관들에 대한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그 중 기녀와 군관들이 작당하여 행패를 부리는 데 대한 폐단을 들어보자.

셋째는 영 군관의 폐이니, 본주 목사는 일도를 전제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또’라고 칭한다. 군관은 ‘영·비장’이라 칭하며 세력이 수령을 누르고 권력이 별성과 대등한데, 변란 후로부터 대(帶)가 늘어 4~50명에 이르렀다. 이 무리들은 무뢰 깡패가 아니면 작은 도둑이거나 간사한 소인의 무리가 많아서 각각 관기를 끼고 빈손으로 부를 도모하여 육방을 분장하여 다 주관하는 바가 있다.

그 나머지는 또 방호소의 주방장으로 보내어 호생모계(互生謀計)로 부속을 침각(侵刻)하고 하찮은 사고를 인연하여 여러 가지로 공갈하고 책망하며, 아주 사소한 털끝만한 작은 일에도 다 뇌물을 받으므로 군민의 원한과 괴로움이 더욱 심하여지고, 혹은 여러 해 노인과 장손을 염류하고, 기녀를 익애(溺愛)하고 상사(喪事) 부음을 들어도 가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

군관, 즉 비장들은 거의 조정에서 파견된 목사의 막료로 따라온 자들이므로 본가에 상사가 생기면 당연히 다니러 가야했다. 조선왕조는 충효를 국시로 삼은 유교의 나라가 아닌가. 그러나 제주의 뱃길은 알맞은 바람을 만나지 못하면 한 번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보통 3~4개월이 걸렸다. 그들이 집안 친척의 상사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러 육지로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기녀에게 있었다. 자기가 제주를 비운 사이에 친하게 지내는 기녀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로 옮겨가 버릴 것을 두려워한 것이었다.

성윤문은 1599년(선조32) 제주목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판관 이정생과 기생을 두고 다투어 도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지탄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사헌부에서 2명 모두 파면을 제의한 이 사건의 내용은 살펴보자.

제주판관 이정생은 관기 중 가장 미색이 뛰어난 기녀를 성 목사가 독점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기녀로 하여금 자신에게 수청 들도록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성 목사는 노발대발하며 당장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관은 들은 체도 않고 목사의 명령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일개 관비인 기녀를 놓고 목사와 판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암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상쟁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정에까지 비화되었다. 결국 직분상 상하관계인 이 판관이 도임한지 1년 만에 파직되었으며 성윤문도 도임 3년 만에 파직되었다.

— 선조실록 34년(1601) 5월 26일계해 조

조선시대 한 남성이 관직에 나아간다는 것은 일신의 영광이요, 가문의 명예였다. 그런데 이 두 관리는 변방의 한 기녀를 두고 자신들의 본분도 망각하고 이전투구를 벌여 세상의 비웃음을 샀던 것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기녀의 이름은 어느 자료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1617년(광해군9) 7월에는 제주관기 4명이 유배 왔던 자들과 서울로 도망쳤다가 잡힌 사건으로 장안이 떠들썩했다. 『비변사등록』에 의하면 제주에 정배된 유배인, 변수 산춘 영환 등이 관비 2명을 거느리고 서울로 도망쳐왔다가 소문이 퍼지자 포도청에서는 그들을 체포하였다. 포도청에서 유배인 명단을 가져다 대조해보니 과연 소문과 같았다. 나온 기녀가 4인이나 되며 그들 중 두 명은 해남에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 문제로 조정이 들끓고 임금에게 보고되었다.

제주는 연륙된 곳이 아니고 정배된 죄인도 범민(凡民)과 다릅니다. 배에 올라 경계를 벗어나려면 심헌(審驗)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죄인과 여러 관비가 도망치도록 방임하여 구금이 없었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제주목사와 판관을 각별히 추고하여 경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7월 1일 조

포구에서 배의 입출항이 엄격히 통제되던 시대에 죄인과 관기가 제주바다를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그들이 배에 타는 걸 묵인해준 관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 관원에게는 막대한 뇌물이 주어졌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출륙금지령으로 발이 묶인 제주여인들의 가슴속에 쌓여 있는 육지와 서울에 대한 동경도 탈출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숙종 때 제주목사였던 이익태는 2년간 재임하였다. 자신이 기록했던 일기와 등록을 참작하여 『지영록(知瀛錄)』을 남겼다. 기녀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당시의 사정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

본 고을은 관노비의 수가 많다. 비(婢)의 경우, 모든 기안(妓案)에 입적되어 있다. 단지 피곤하고 열악한 약간의 비자에게 영·목에 물자를 공급하는 일을 나누어 맡기니, 고대 없이 번 드는 일이 더 고되었다.

기녀의 경우, 목사의 수청 이외에 세 고을 수령과 교수(敎授) 아객(衙客) 군관(軍官) 삼학(三學)이 각기 기녀 한 사람을 끼고 첩으로 삼아 동거하는 일이 있는데 역을 면하고 한가히 노니, 이들은 기녀 중에 출중한 자이다.

또 영에는 침장기(針匠妓) 10여명이 있다. 그 나머지는 교방기라 하여 차례로 다모(茶

母)의 잡역이 돌아가니, 같은 관비이면서 사역이 균등하지 않다. 공공의 일로 헤아려 보아도 이를 데 없이 심하다.

첩으로 맞이하여 동거하는 기녀에 이르러서는 총애를 받고 방자하여 아무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향소(鄕所) 이하가 이에 인연하여 기대니 사람들은 모두 모든 일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될 수 없음을 안다. 혹은 자주 정령의 폐를 끼치고 있으니 세상에서 제주기녀의 권세가 막중하다고 칭하는 것도 진실로 빈말은 아니다.

기적 내에 아주 우매한 기예를 단호히 폐지하되, 용모가 못생기고 행동이 추잡한 자로 7,8명을 공자(供子)로 신분을 낮추어 종사하게 하고, 군관과 삼학의 방기(房妓)로 번갈아가며 다기(茶妓)의 역을 행하게 하여, 역을 균등히 하는 사환으로 삼도록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였다.

목사와 현감, 향교의 교수, 비장들은 각기 기녀를 애첩으로 삼아 동거하였다. 그건 감영 밖에 집을 얻어 살림을 차렸다는 말이다. 당연히 생활비가 들었고 뇌물을 받아야 했다. 지방의 유지급 인물들도 모두 이런 기녀들에게 연줄을 대어놓고 있었다. 관에 무슨 일을 통하려면 뇌물을 기녀들에게 주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익태 목사가 목격한 제주목 관아의 실상은 기강이 문란해진 관리, 그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며 장악하고 있는 제주기녀들의 판이었다.

“세상에서 제주기녀의 권세가 막중하다고 칭하는 것도 진실로 빈말은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제주기녀에 대한 조선시대 관리들의 정보와 평가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익태는 제주목사로 오기 전 한양에서 이미 제주기녀들의 권세에 대해서 익히 들었던 것이다. 현장인 제주에 와서 그걸 분명히 확인하고 실감했다. 그러나 그가 내뱉은 한탄인지 감탄인지 모를 이 소리가 향해야 할 곳은 제주기녀가 아니라 기강이 해이해진 관리들이었다.

역사의 뒤편에서 향기를 뿜다

세상에서 기녀를 보는 눈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관아에 소속된 전통기에 집단인데도 그들을 기생(妓生)이라 부르며 폄하하였다. 그 이면에는 재물과 권력에 기생(寄生)하는 천하의 천한 존재라는 암시가 확연히 함축되어 있다. 사대부들이 풍류의 동반자로 삼았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회성이었으며 소모품을 전제로 한 관계였다.

제주기녀 중에는 권력에 편승하여 사치를 누리거나 재물을 모은 여성도 물

론 있었을 것이다.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천한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비애를 안고 평생을 살다간 기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기녀 중에는 탁월한 정신을 가진 인물들이 많았다. 비록 역사의 전면에서 나서는 못하였으나 뒤안길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었던 여인들이 있었다.

조선시대 성종대의 제주의녀 장덕과 귀금은 서울로 뽑혀가 뛰어난 의술(醫術)로 궁궐은 물론 한양에서 이름을 떨쳤다. 그녀가 치통치료에 있어 얼마나 신비한 의술을 베풀었는지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환술(幻術)이라는 경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장덕과 귀금의 의술은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 제주의 신당에는 유난히 허물할망(종기를 치료해주는 여신), 낫할망(신체적인 놀람, 정신적 충격으로 몸에서 빠져나간 혼을 불러 들여 넣는 여신), 부스럼할망(피부병) 등 의료관련 여신들이 많다. 이들은 살아생전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아낌없이 의술을 베풀어줬던 의녀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의 신통한 의술과 따뜻한 마음씨는 죽은 후 신격화되었던 것이다.

곤생(昆生)은 숙종 대의 제주기녀이다. 목사의 불의한 횡포로 세 딸이 희생당하자 제주바다를 건너가 신문고를 쳐서 권력남용을 고발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집념의 그녀는 기어코 출륙금지령을 뛰어넘었다. 절해고도의 일개 늙은 기녀가 감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제주목사에게 대항하였고, 결국 신문고를 두드려 임금에게 호소하였다. 그녀의 정신의 바탕에는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결코 굴할 수 없다는 정의감이 굳게 자리하고 있었다.

오진(吳瞋)은 숙종 대의 제주기녀이다. 숙종의 처남이었던 김진구가 유배 왔을 때 오진의 집에 살았다. 수발을 들고 동거하면서 그녀는 아들도 하나 낳는다. 김진구는 오진의 집에서 오정빈, 고만첨, 정창원 등 제주의 인재들을 가르쳤다. 이들은 1706년 이해조 어사가 시취할 때 사마시에 3인이 동시에 합격하였다. 이어 1707년에는 서울에서 실시하는 전시(殿試) 병과에 급제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출신 선비와 무인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도전했다. 그러나 한 스승에게서 3인이 한 날 한 시에 동방급제(同榜及第)의 영광을 이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영광의 뒤안길에는 오진이 있었다. 그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며 오로지 공부에 전념하게 해준 결과였던 것이다.

석례(石禮)는 숙종 대의 기녀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북헌 김춘택(金春澤)이 지기(知己)라고 인정했던 명창이다. 김춘택이 유배와 제주성 남문에 살 무렵 알게 되었다. 그녀가 부르는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을 듣고, 그보다 더 곡진하고 그 보다 더 쓰라린 자신의 심정을 담은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을 한글로 짓는다. 석례는 성적 매력으로 시인을 홀린 기

녀가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을 준 뮤즈였던 것이다.

김만덕(金萬德)은 정조 대에 이름을 방방곡곡에 떨친 여장부였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쾌척하여 임금을 감동시키고 조정대신들의 존경과 찬탄을 받았다. 그녀의 구호가 돌연히 행하여진 것은 아니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헌신은 제주기녀의 전통이었다. 제주의 곳곳에서 구전되고 있는 민담이 그 증거이다.



〈김만덕 묘비〉

대정읍 인성리에는 수월이물이 있다. 대정현의 관기였던 수월(水月)이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마을사람들을 위해 토지를 사 내놓았다. 마을사람들은 습지인 그 땅에 물통을 파서 남녀 각각의 물통을 만들어 사용했다. 주변에는 연못을 조성하여 우마 떼가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려 수월이물이라 지금도 불리고 있다.

조선조 말, 제주에서 이재수란이 일어났을 때, 제주성문은 폐쇄되고 물자가 부족해가자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굶주리기 시작했다. 이때 제주기녀였던 만성춘(晩成春), 만성월(晩成月) 모녀는 제주성에 올라가 대포를 성 아래로 밀어뜨려 무기들을 무력화시켜버렸다. 그리곤 사람들을 선동하여 성문을 여는데 앞장섰다. 서양신부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기백으로 돌파해나간 여성

들이었다. 민중의 생존권이 무시당하는데 대한 분노와 정의감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수월이물〉

서귀포시 송산동에는 관청(官廳)할망당, 또는 진안(鎭內) 할망당이라 불리는 당이 있다. 이 당은 조선시대 말 대정현 서귀진 소속의 한 기녀를 모시는 당이다. 현재도 공직에 있거나 관청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당이다. 조선조가 대한제국이 되었다가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됐을 때였다. 서귀포에는 억울하게 주재소에 잡혀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관청할망은 이들의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사나이들을 잘 다룰 줄 알았던 할망은 술을 빚어 헌병대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동향을 살펴오기도 했다. 잡혀간 이들을 변명해주고 보증을 서주기도 하였다.

제주기녀들 중에는 자존의식이 남달랐던 여성들이 많았다.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고귀한 정신의 삶을 지향함은 여간한 내공이 없고선 불가능하다. 많은 제주기녀가 시대를 초월한 인간애로 민초의 고통을 어루만지는데 생애를 헌신하였다. 그들은 비록 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을지라도 내면 깊숙이 지혜로운 기질을 간직하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았다. **JDI**